

월요논단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주에 윤춘광 도의원 영결식이 도의회 광장에서 있었다. 두 달 전인 5월에는 역시 그 자리에서 허창욱 도의원 영결식이 있었다. 한 달을 멀다 않고 도민 대표인 도의원 사망의 비보를 들어야 하는 도민들은 충격이다. 그 두 분은 한 분은 50대, 한 분은 60대로 지방정치인으로서 한참 일할 나이이다. 그래서 더욱 아깝다는 추모사들이 연이어 진 것이다. 흑자는 기초 의회가 폐지되어 그 일까지 도맡아서 격부로 돌아가셨다고 주장도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두 분과

오래 기억해야 할 두 도의원의 죽음

동시대를 살았고, 그들이 쌓아 놓은 흔적을 생생하게 보았던 필자는 또 다른 사망원인을 찾아본다. 그 두 사람은 배고픔이 아니라 독재정부에 의해 인권유린이 일상화되었던 암울한 시대에 방향을 찾지 못한 시대를 맨 몸으로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갔다. 독재정권에게는 쉽지가 않은 정권교체를 외쳤고, 농산물 개방을 당연시 하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를 향해서는 '농업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외쳤다. 당시 독재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대학, 정치권에서 주도를 했다. 주도 내용도 청와대와 국회의 향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우리 지역의 외진 곳, 무시당하는 그들과 늘 함께 있었다. 윤춘광 의원은 기초 공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 분이 하는 말, 논리, 어느 하나 막힘이 없었다. 민주화에 대한 그의 노력과 정열, 그리고 진정성은 어느 명망

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허창욱 의원은 반정부 운동 면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도 외진 곳이라고 하는 대정골을 무대삼아 오직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위하여 젊음을 다 바쳤다. 지금 제주도에 대정 농민운동의 중심이 된 이유도 바로 허창욱 의원과 그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두 분은 그 분들이 사랑하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하여 민주, 민권, 농민을 위하여 몸과 혼을 다 바쳤다. 30여년을 그렸다. 아무리 강자라 해도 인간에게는 혼신의 용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 두 분은 이미 그 용량을 초과하고 초과하였기에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 지역의 민주화와 농민운동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던 그 결과로 4·3사건의 진상, 간첩조작사건 등 크고 작은 인권 유린, 반민주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 곧 사라질 것 같았던 제주농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싱싱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분들의 헌신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인 것 같다. 아직도 정부와 권력자, 기득권자에 의한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산업의 중심인 농업도 사실은 늘 위태위태하다. 이 현실을 잊지 않겠다. 만약 다시 암울하고 암울한 시대가 오면 우리 역시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겠다.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공유한다면 저승 가는 길 두 분 애연가에게 마지막 담배 한 개 피 드리는 일일 것이다. 도의회든 그들과 함께 했던 단체든 매년 그들을 기리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일들이 제2, 제3의 허 의원, 윤 의원을 길러내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지키기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



김명선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더위가 시작되니 아들은 냉장고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맛있게 먹는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아들 녀석은 아이스크림 봉지를 마루 바닥에 던져 두고는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들을 향한 폭풍 잔소리가 시작된다. "집이 쓰레기통이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해줘야 해?"를 시작으로 훈계가 시작된다. 우리 아들처럼, 주변에는 "나하나 좁이야 관자, 누군가 치워주겠지"라며 담배꽂이를 거리낌 없이 버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슬쩍 버리고 가는 등 암체들이 참 많다. 사람이 살기 편해지면 쓰레기의 종류와 양도 거대해지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 자신의 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우리나라의 질서준수 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제주시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오랜 관습과 바꾸기로 개선이 쉽지 않은 않다. 단속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모르고 그랬는데 왜 바꾸지 않는냐", "왜 이렇게 규정만 따지냐" 등 혐조나 독려 보다는 왜 이러냐는 식의 따져 묻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불편하지만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리고, 종류별로 깨끗하게 분리배출 하고, 야외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되돌아 오는 것이 미련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실현되고 존중된다. 그리고 그 의무의 밑바탕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자리 잡아야 한다.

경오염으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 자신의 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우리나라의 질서준수 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제주시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오랜 관습과 바꾸기로 개선이 쉽지 않은 않다. 단속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모르고 그랬는데 왜 바꾸지 않는냐", "왜 이렇게 규정만 따지냐" 등 혐조나 독려 보다는 왜 이러냐는 식의 따져 묻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불편하지만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리고, 종류별로 깨끗하게 분리배출 하고, 야외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되돌아 오는 것이 미련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실현되고 존중된다. 그리고 그 의무의 밑바탕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자리 잡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행조특위 현장방문 마무리속 후속일정 관심

9월까지 사업장 신문조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모든 현장방문을 지난 19일 마무리한 가운데 후속 일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

앞서 주요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이 주요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두차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현재 행조특위는 8월 예정된 5개 사업장에 대한 신문조사에 이어 9월 중 17개 사업장에 대한 신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

○...제주시가 관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안전 및 불법영업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해 주목. 제주시는 이 기간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 계절음식점과 편의점 등 식품조리·판매업

소를 대상으로 가격표 미게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안전한 식품 공급과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

○...제주Utd가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을 위해 U-18팀을 대상으로 '주축야독'을 실천해 나갈. 제주Utd 관계자는 "제주 U-18팀 선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클럽하우스 인재관으로 모여 영어와 국사 특강을 받는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토론·발표, K리그 및 유럽리그 전술 분석을 통한 축구지능향상, 부상방지 프로그램 교육, 올바른 성문화 알기, 응급처치 교육, 제주도 탐방 등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개성과 소질을 발휘시킬 수 있게 돕고 있다"고 강조.

사설

태풍피해 속출, 재해예방 취약성 드러내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다나스는 짧은 기간에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불폭탄이 무색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때문에 다나스는 강한 바람보다는 많은 비를 뿌리면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누적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086mm, 윗세오름 1001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산천단 356mm, 송당 343mm, 우도 315mm, 성산 298.6mm, 금악 235.5mm, 제주 212mm, 서귀포 189.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성산은 19일 하룻동안 262.7mm가 내려 역대 7월 중 하루 강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도 19일 하루 187.7mm로 역대 3위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면 침수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93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침

수 19건, 도로침수 11건, 하수역류 6건, 배수지원 6건, 도로파손 3건, 신호기 고장과 가로수 전도 등 기타 48건입니다. 특히 폭우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감굴비닐하우스 932㎡와 안덕면 상창리 콩 재배농가 5319㎡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기상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해도 특하면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도 사나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름태풍보다 위력이 더 강력한 가을태풍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로서는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그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재해예방에 그만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수 오염행위 사전 차단 대책 서둘러야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여전히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섬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지하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축이나 지하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비료 살포와 축산폐수 등에 의한 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표성이 있는 지하수 133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인 10mg/l를 초과한 관정은 서부지역 7개소, 남부지역 1개소 등 총 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질산성질소 농도의 전체 평균값은 2.8mg/l인데 서부지역이 5.3mg/l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는 서부지역의 농업형태와

집약된 축산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연구원원이 최근 고산1리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질소 잉여분을 산정한 결과, 면적 10a 당 보리 56.5kg, 무 30.9kg, 양배추 22.9kg 등으로 화학비료가 표준시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량을 벗어난 뿌려진 화학비료를 인해 질산성질소의 잉여분이 토지에 잔류해 있다가 지하수로 이동하면서 오염을 일으킨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서부지역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질 개선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과도하게 살포된 액비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수질 오염 유발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고
양창승·창두·창홍(영창기업, 직접사사 상임위원) 어머니 진주강씨 순숙(향년 100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21일 오전 8시 18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22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S-중앙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유수암 선영

부고
김학준(한일건설(주) 부장) 아버지 경주김공 윤선(前 KOT본부장·향년 82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9일 16시 0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22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천왕사

부고
고영배(주)월드씨엔에스) 어머니 진주강씨 명자(향년 80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20일 20시 3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23일(화)
▶발인일시: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도훈장 아산박공 지택(향년 85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22일
아들 박재홍 며느리 정미진
재관 서희경
재민 부영희
딸 박재림 사위 전육석
문숙 허중민

합병 공고
2019년 7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미성은 섬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섬미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섬미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6, 2층(이도이동)
사내이사 황지현

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
1. 2019년 7월 1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미성은 섬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섬미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의 제출기간: 2019년 7월 22일 ~ 2019년 8월 23일까지
2019년 7월 22일
주식회사 미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6, 2층(이도이동)
대표이사 황지현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부인 장영희
아들 양창승 강원순
창두 고병생
창홍 박선자
딸 양축생 임생
은숙 사위 윤철후
장손 양영철
*연락처: 양창두 010-3699-7929
양창홍 010-3691-4781
양은숙 010-2378-6345
박선자 010-3692-4788

아들 고영배 며느리 김미경
영석 장남희
딸 고영리 사위 강민관
영심 박훈
영미 김재철
*연락처: 김학준 010-6666-5141

아들 고영배 며느리 김미경
영석 장남희
딸 고영리 사위 강민관
영심 박훈
영미 김재철
*연락처: 고영배 010-7677-3335

합병 공고
2019년 7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미성은 섬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섬미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섬미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6, 2층(이도이동)
사내이사 황지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률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